‘대북 평화’ 기조에 불교 교류 재개 ‘기대’

조계종, 대북 종책특보 임명
민추본 ‘당국 대화 재개’ 촉구
“불교문화 교류 단초 기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대북 교류를 담당할 종책특별보좌관을 임명하고 당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등 남북 불교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6일 대북 종책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불교계가 남북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남북 관계가 오랜 기간 경색돼 있고 정치적·국제적으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형국”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하고 “이럴 때일수록 종단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통한 민간 교류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조계종이 신계사 복원 불사, 공동 법회 개최 등 남북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해 온 점을 짚고 “새 정부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불교계가 다시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규민 특보는 “이재명 정부가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 교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교문화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도 6월 13일 논평을 통해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추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도 12일부터 대남 방송을 하지 않게 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그동안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 위기를 조장하고 주민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해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선제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을 다시 화합하고 적대가 깊어진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며 “조계종단과 민추본도 평화의 물꼬를 트고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7월 10일에는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민추본 창립 25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장창준 교수(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가 ‘미중 패권 속 동북아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를 강의한다. 이어 ‘대선 이후 남북 관계 변화 전망 및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집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발표한 공약에서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 교류사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종단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 대북 화해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6월 15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 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불교계가 민간 차원의 교류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아는 친구” 20회 전등사 이주민 축제

6월 15일 전등사 경내서 개최
전국 최대 규모 1000여 명 동참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아시아 이주민들을 위해 펼치는 화합의 장 ‘이주민 문화축제-아시아는 친구’가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6월 15일 전등사 경내에서 열린 제20회 이주민 문화축제에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등 10여 개국 이주민과 관람객 1000여 명이 참가해 전국 최대 규모의 이주민 문화축제임을 실감케 했다.〈사진〉

오전 10시 30분 문을 연 체험 부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의 단주 만들기, 강화로닷컴의 한국 전통 혼례 체험, 강화가족센터의 아시아 전통 놀이 부스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안산 연화사와 파주 재한 베트남 법당이 운영한 부스에는 반미 등 베트남 음식을 맛보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한방병원의 무료 진료와 주재희 약손봉사단의 발마사지, 동방대학원대학 원우회의 위락치유 등도 마련돼 이주민들의 건강을 살폈다.

오후 1시 열린 환영식에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 권력과 부의 크기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며 “오늘 하루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자유롭게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식에 이어 본 행사인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강화국악예술단의 한국전통무용 ‘사랑가’를 시작으로 강토연희단의 ‘웃다리 사물놀이’, 서울 네팔 법당의 전통악기 연주, 베트남 원오사의 전통무용이 선보였다. 또 미얀마, 줌머족, 재한 베트남 사찰, 미얀마 불교전법사원, 탈북민, 스리랑카, 고려인들이 준비한 공연이 무대를 수놓았다.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는 지난 2005년 삼랑성 역사문화축제에서 처음 열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봄 개최돼 이주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화 전등사=여수령 기자

“순국선열 뜻 이어 원력 다해 정진”

6월 14일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서
제25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봉행
“국가급 행사로 자리매김 노력”


6월 14일 열린 제25회 호국영령 위령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군 관계자들이 영가들의 위패를 이운하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 72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와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고현석)가 주관한 제25회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6월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BS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과 군불교 신행단체 임원 및 회원,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국회의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천도의식은 전쟁기념관 본관에 봉안된 위패를 진우 스님과 장성, 군의장대, 취타대가 호위하며 이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조계종 어산종장 법안 스님과 어산작법학교 스님들의 천도의식과 내빈들의 헌향 및 헌화가 진행됐다.

2부 추모법회는 호국영령에 대한 조총과 묵념으로 막을 열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봉행사에서 “온 힘을 다해 천도재와 위령재를 봉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전몰장병, UN 참전국 장병,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고현석 국군불교총신도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는 평화로운 삶과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앞으로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지속적으로 봉행해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하고 안보 결의를 다짐하며 국운융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가법어에서 “우리는 순국선열의 희생의 염원을 이어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분열과 대립을 넘어 민족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공덕을 바탕으로 이제는 고통과 업장을 모두 놓으시고,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시어 열반적정의 평화로운 세계에 드시기를 간절히 발원한다”며 “다가올 새로운 천년, 후손들은 조국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역량과 원력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수불 스님은 추모사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불태우신 영웅호걸이시여! 모든 것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임들은 불보살님의 광명을 따라 정토로 가시옵소서! 온 겨레의 애타는 추모의 정을 굽어살피시어, 이제는 마음 놓으시고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기원했다.

추모법회는 소리꾼 고영열의 추모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군종특별교구는 “호국영령 위령대재가 향후 국가급 행사로 발전해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표적 호국보훈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성 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 염원”

조계종 사노위 6월 14일
서울퀴어퍼레이드서 부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6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우정국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다.〈사진〉

서울퀴어퍼레이드는 2000년부터 성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열리는 행사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란 기치를 내건 올해 행사에는 사노위를 비롯한 7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사노위가 이 행사에 힘을 보탠 것은 2017년부터 올해로 아홉 번째. 이날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시경·원경·도승·동신·선우·한수 스님 등 7명의 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 박정규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행사 부스를 운영했다.

사노위 스님들은 부스를 찾은 이들에게 오색실 팔찌를 나눠주며 다양성을 향한 존중과 포용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화엄경〉’, ‘다름을 보는 눈이 아닌 평등을 보는 지혜로 살아가라 〈금강경〉’ 등의 경전 글귀와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의 그림이 담긴 4가지 종류의 스티커를 방문객에게 전달했다.

배희정 객원기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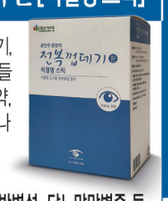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